

# ‘-적’형의 통사적 범주와 의미

김 선 호\*

## I. 들어가기

본고는 접미사 ‘-적’과 결합한 유형의 통사적 범주와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미사 ‘-적’이 국어의 단어 형성에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100년 전이지만, ‘-적’의 출현 이후 ‘-적’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적’이 대개 2음절 한자어와 결합하지만 외래어나 고유어와도 결합하는 활발한 생산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나 고유어와 결합하는 대부분의 ‘-적’은 임시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한자어와 결합한 ‘-적’의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II. ‘-적’형의 통사적 범주

### 1. ‘-적’형의 통사적 층위

접미사 ‘-적’형의 통사적 범주는 크게 관형사, 명사, 부사, 어근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것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최현배(1937/1966: 575-6)인데, ‘-적’의 기능에 따라 관형사와 명사로 구분하였고,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형을 품사 통용 현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

---

\* 서울대 강사

니면 하나의 품사로 봐야 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지금까지 ‘적’형의 통사적 범주에 대해 논의한 것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 ‘적’형은 명사와 관형사로 통용된다: 최현배(1937), 김광해(1983)
- b. ‘적’형은 명사이다: 임홍빈(1982), 김수호(1990), <조선어문법>(1949), <조선어문법1> (1961), 전자사전개발분과(2000)
- c. ‘적’형은 명사와 부사로 구분된다: 김재운(1974), 이상혁(1991), 정희정(2000)
- d. ‘적’형은 명사이지만 형용사적 쓰임을 가진다: 홍재성(1974, 2001b), 김창섭(1984), 조남호(1988)
- e. ‘적’형은 관형사이다: 김민수(1955)
- f. ‘적’형은 서술명사이다: 김규철(1981)
- g. ‘적’형은 어근이다: 전자사전개발분과(2001)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적’형의 문법 범주는 명사, 관형사, 부사, 서술명사, 어근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1)의 문법 범주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층위가 우선적으로 분명해져야 한다. 전자사전개발분과(2001) 이전의 논의에서는 ‘적’형이 단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전자사전개발분과(2001)는 ‘적’형이 단어의 층위가 아닌 어근의 층위라는 것이다. 만약 ‘적’형의 통사적 층위가 어근으로 설정된다면 통사적 범주에 대한 논의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형의 통사적 범주에 대한 논의 이전에 통사적 층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어근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전자는 어근이 접사를 제외한 형태소 전부를 뜻하는 것으로, Bloomfield(1933: 240), Gleason(1961: 59), 허웅(1963) 등에서 수용하였고, 후자는 어근이 어느 경우나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고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를 뜻하는 것으로,<sup>1)</sup> Hockett(1958: 241), 이익섭(1968, 1975), 김창섭(1996, 1999),<sup>2)</sup> 허철규(1997) 등에서 수용한 개념

1) 이익섭(1976: 160) 참조.

2) 김창섭(1996: 160-4)은 ‘비가 올 듯하다’의 ‘비가 올 듯’도 형용사 ‘어근+하다’의 어근말음절의 표현적 장음화가 발생하므로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단

이다. 한편 남기심·고영근(1987: 190)도 어근과 어간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근을 단어형성시의 불변요소, 어간을 활용시의 불변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어떤 한 형태소가 동시에 어근도 되고 어간도 될 수 있는 불명확성을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어근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든 협의적으로 해석하든, '적'형을 어근으로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어근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적'형이 어근이 되려면 '적' 선행요소인 어근과 접미사 '-적'이 결합한 것이 어떻게 어근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a. 논리적 사고
- b. 논리적인 사고
- c. 아이가 논리적으로 말한다.

(2)의 '논리적'이 어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근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명사 '논리'와 접미사 '-적'이 결합하여 어근화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논리적'은 다시 접두사 '비(非)'와 결합하여 '비논리적'이 생성될 수 있다.<sup>3)</sup> 전자사전개발분과(2001)에 의하면 이것도 어근이 된다. 그러므로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어근의 개념과 접사의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적'형을 어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2. 통사적 범주

그러면 '-적'형이 어근이 아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적'형의 통사적 범주는 대개 명사, 관형사, 부사, 서술명사 등으로 논의되어왔다. 이 중 부사는 일부 형태에서

---

위의 어근화 논의는 음운론적 현상 외에 의미·통사론적 현상을 근거로 하여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3) 최형용(2000: 230-3)은 이러한 '-적'형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반독재적'과 같은 경우는 '[반[독재적]]'의 성분분석구조라기보다는 '[[반독재]적]'으로 분석되고, '비정치적'과 같은 경우는 '[비[정치적]]'의 구조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만 발견되고,<sup>4)</sup> 서술명사는 '-적'형 뒤에 계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적'형의 품사 논의는 명사와 관형사로 구분하거나, 명사로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2)의 '논리적'이 (2a)와 같은 경우는 관형사이고, (2b)나 (2c)와 같은 경우는 명사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것은 (2)의 '논리적'을 문장 위치에 따라 그 통사 범주를 구별하는 것은 명사의 일반적 원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그리고 관형사는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하는데,<sup>6)</sup> '-적'형은 (2b)와 같이 부사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적'형은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적'형이 어떻게 명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국어의 명사는 인도·유럽어족의 명사와 달리 형태론적으로 격 변화, 수 범주 표시, 문법적 성(gender) 구별이 없으므로, 통사론적 기준에 의해 명사를 구별할 수밖에 없다. 홍재성(2001b, 2001c)은 국어의 명사가 가지는 통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 a. 반드시 격조사가 후치될 수 있다.
- b. 관형사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수식 성분이 선행할 수 있다.
- c. 주어 또는 보어와 같은 문장 구성의 필수적 통사 논항의 기능을 하는 구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 d.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3a)와 (3b)는 구 구성의 차원에서 관찰되는 통사적 속성이라면, (3c)와 (3d)는 문장 구성의 차원에서 국어의 명사가 가지는 통사적 속성이다.<sup>7)</sup> 문

4) '-적'형의 대표적 부사로는 '가급적', '비교적' 등이 있다.

5) 임흥빈(1982)는 선행명사구가 후행명사구를 수식하는 것은 국어 통사론의 일반적 원리이므로 동일 형태를 굳이 두 개의 품사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6) 관형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줄고(2002: 28-30) 참조.

7) (3d)는 단어 이상의 층위도 올 수 있으므로 필수적 속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적'에 '이다'가 결합하거나 그 부정으로 '-적이 아니다'는 '-적'형이 명사임을 입증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은 명사뿐 아니라 구 구성 내지 문장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해가 지면서이다.

제는 (3)의 명사적 속성이 ‘적’형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적’형이 어느 정도 명사적 속성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째, 명사는 반드시 격조사를 후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적’형은 일부 격조사만 후치할 수 있다.

- (4) a. 학생(이/을/의/에게/으로)
- b. 학생(만/도)
- (5) a. 논리적(?이/\*을/\*의/\*에/으로)
- b. 논리적(\*만/\*도)

(4)의 명사 ‘학생’은 격조사도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보조사도 자연스럽게, (5)의 ‘논리적’은 격조사 중에서 ‘이’와 ‘으로’만 실현되고 보조사는 실현될 수 없다. ‘적’형이 부사격조사 ‘으로’와 결합한 예는 (2c)에서도 나타났지만 보격조사 ‘이’와 결합한 예는 소수의 동사 앞에서만 발견된다.

- (6) a. 기영이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소극적/이기적/호의적]이 되었다. (홍재성 2001b 인용)
- b.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6a)는 보격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6b)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처럼 ‘적’형은 소수의 격조사와만 결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명사는 수식성분인 관형어가 선행할 수 있지만 ‘적’형은 어떤 수식성분의 수식도 받지 못한다.

- (7) a. [그 [학생]]
- b. [서울의 [학생]]
- c. [착한 [학생]]
- (8) a. \*[[그 [논리적]] 사고]
- b. \*[[그의 [논리적]] 사고]
- c. \*[[명석한 [논리적]] 사고]

(7)의 명사 ‘학생’은 관형어인 (7a)의 ‘그’, (7b)의 ‘서울의’, (7c)의 ‘착한’의

(2) 그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해가 지면서가 아니라 해가 뜨면서이다.

수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8)의 '논리적'은 어느 선행 성분도 수식 받지 못한다. (8)의 구문은 (9)와 같은 수식 구조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9) a. [그 [논리적 [사고]]  
 b. [그의 [논리적 [사고]]  
 c. [명석한 [논리적 [사고]]

(8)의 수식 구조는 허용되지 못하고 (9)의 수식 구조만 허용되는 현상은 '적'형이 명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명사는 대부분 수식성분을 당연히 요구하는데 '적'형은 수식 성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형이 명사가 아니라 어근에 근접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적'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국어의 명사 중에서 '적'형과 같은 수식 성분의 제약성을 가지는 것이 또 발견되므로, (8)의 수식 관계로 '적'형이 명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 국어의 명사류에는 수식어의 위치에만 실현되는 것과 피수식어의 위치에만 실현되는 것이 있으므로 '적'형이 수식성분이 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셋째, 명사는 문장 구성의 필수적 통사 논항의 기능을 하는 구의 핵심적 요소가 되지만 '적'형도 일부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 (10) a. 나는 사과를 좋아해.  
 b. 나의 생각은 이제 매우 논리적으로 변했다.

(10a)의 동사 '좋아하다'가 '나는'와 '사과들'를 논항으로 취한 것처럼 (10b)의 동사 '변하다'도 '생각은'과 '논리적으로'를 논항으로 취하고 있다. 물론 '적'형이 문장 내에서 필수 논항으로 기능하는 것은 후행하는 동사의 의미적 자질에 따라 다르다. 동사가 부사어를 필수논항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적으로'가 필수 논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0b)와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필수논항이 된다.

넷째, 명사는 계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것과 같이 ‘적’형도 ‘-이’와 결합할 수 있다.

- (11) a. 나는 학생이다.
- b. 그의 사고는 매우 논리적이다.

(11a)의 ‘학생’이나 (11b)의 ‘논리적’은 모두 계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계사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사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계사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가 명사뿐 아니라 구 내지 문장 단위까지 다양하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적’형은 명사의 기본적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격조사의 후치도 일부 격조사만 가능하였으며, 선행 성분의 수식도 홀로 받지 못하였으며, 문장 구성에서 필수 논항의 기능도 동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국한되게 실현되었다. ‘적’형의 이러한 현상은 명사로서의 자격을 재고하게 한다.<sup>8)</sup> 그러나 이것은 ‘적’형이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온전하지 못하다. 명사의 속성을 온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일부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명사가 (3)의 속성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모든 명사가 (3)의 속성을 만족시키지 않다면 ‘적’형이 (3)의 속성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적’형이 명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의 명사 하위부류 중에는 명사에 포함되지만 그 특성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형명사<sup>9)</sup>와 의존명사<sup>10)</sup>이다. 이들은 통사적 특성에서 다른 명사와 다른 일면

8) 이상혁(1991)은 ‘적’형의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근적 명사’라 한다.

9) 관형명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영옥(1994), 김창섭(1999), 이선웅(2000), 구소령(2001), 노명희(2002), 줄고(2002) 참조. 관형명사는 아직 명사의 범주에 포함하기 기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 관계, 긴급 출동’ 등의 ‘국제’나 ‘긴급’은 노명희(2002), 전자사전개발분과(2002) 등과 같이 명사의 자격을 가지기보다는 어근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관형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10) 의존명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영근(1970), 이주행(1985), 임동훈(1991), 서정수

을 보여준다.

첫째, 관형명사와 의존명사는 격조사의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관형명사는 그 특성상 수식성분으로만 사용되고 조사의 결합에 제약을 나타낸다.

- (12) a. 국제(國際): 국제 단체, \*국제가, \*국제를, ?국제의, \*국제으로, ?국제이다.  
 b. 가공(架空): 가공 인물, \*가공이, \*가공을, 가공의, \*가공으로, \*가공이다.  
 c. 강력(強力): 강력 살충제, \*강력이, \*강력을, \*강력의, ?강력으로, \*강력이다.

(12b)의 관형명사 '가공'은 관형격조사 '의'를 수용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제약이 발행하며, (12a)의 '국제'와 (12c)의 '강력'은 대부분 어색하다. 이것은 관형명사인 한자어들이 한자어 고유의 내부적 속성을 잃고 거의 국어화된 것이 대부분이므로,<sup>11)</sup> 이들이 국어화 과정에서 명사로 온전히 굳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관형명사는 격조사와의 결합에 현격한 제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존명사의 조사 결합 양상은 관형명사보다 자유롭지만 의존명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의존명사 '것, 거리' 등은 조사의 결합이 자유롭지만 '대로, 만큼' 등은 매우 제약적이다.<sup>12)</sup>

- (13) a. 우선 우리 집에 연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b. 집을 나서기 전에 면도를 좀 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c. 씩씩거리는 최 의원을 말린 것으로 그의 임무는 끝난 것 같았다.  
 (14) a. 가난 때문에 영혼을 팔아 버린 여자.  
 b. 엘리노 현상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것은 배기가스의 심각한 배출량 때문으로 추정된다.  
 (15) a. 임상허가가 나오는 대로 국내 대학병원과 임상시험 계약을 맺고 내년 7·8월에 주사제를 본격 생산할 예정.  
 b. 내가 꿈꾸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13)의 '것'은 '이/가, 을/를, 에, 으로' 등 여러 격조사가 올 수 있고, (14)의 '때문'은 조사는 부사격조사 '에'나 '으로'가 올 수 있고, (15)의 '대로'는

(1995), 이병모(1995), 신서인(2000) 참조.

11) 한자어의 계 특징에 대하여는 송기중(1992: 1-86), 김창섭(1999) 참조.

12) 의존명사와 조사의 결합 제약 현상은 신서인(2000: 31) 참조.



어떤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의존명사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격조사 결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3a)에 의한다면 (14)의 ‘때문’이나 (15)의 ‘대로’는 의존명사의 부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문’은 일부 격조사와만 결합하며, ‘대로’는 아예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존명사의 일반적 기능은 의존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수식성분인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데, ‘때문’과 ‘대로’도 이 기능에 만족하므로 명사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3)</sup> 비록 이들 명사가 격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만 의존명사의 일반적 기능에 만족하므로 의존명사 부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명사 중에는 격조사의 결합에 제약을 가지지만 명사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적’형의 부분적 제약 현상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이거나 관형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홀로 받을 수 없다. 의존명사는 (13)~(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관형명사는 그렇지 않다.

- (16) a. \*[그 [국제]] 경쟁력
- b.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 c. \*우리 기업들의 잃어버린 [국제] 경쟁력.
- (17) a. [그 [국제] [경쟁력]]
- b.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 c. [우리기업들의 잃어버린 [국제] [경쟁력]].

(16)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관형명사 ‘국제’는 (16a)의 ‘그’, (16b)의 ‘우리 산업의’, (16c)의 ‘우리 기업들의 잃어버린’의 선행성분의 수식을 홀로 받지 못하고, (17)과 같은 수식 구조를 가진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형명사의 수식 현상은 ‘적’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어떤 단어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3)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13) 서정수(1995)는 의존명사의 조건을 으뜸조건과 보조조건으로 나눴다. 으뜸조건으로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의 관형어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며, 보조조건으로는 의존명사는 일반적으로 그 뒤에 조사나 지정사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의 모든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명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의존명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명사로 인정받고 있고, 관형명사는 홀로 선행 성분의 수식을 받지 못하며 격조사와의 결합에도 심한 제약을 가지지만 명사의 하위부류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적’형이 국어의 명사류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적’형이 홀로 선행 성분의 수식을 받지 못하지만, 격조사 ‘이’, ‘으로’와 결합하며, 문장 구성에서 필수 논항이 될 수 있으며, 제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명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본다.

‘적’형, 의존명사, 관형명사는 수식 성분에 의존하든 피수식 성분에 의존하든 모두 의미·통사적으로 의존성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적’형은 관형명사에 비해 훨씬 명사의 속성이 강하지만, 수식관계에서는 다른 명사와 달리 피수식어의 위치에 오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즉 수식 관계에서 ‘적’형과 관형명사는 수식어의 위치에서만 실현되고, 의존명사는 피수식어 위치에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를 ‘수식 의존성 명사’라 하고, 후자를 ‘피수식 의존성 명사’라 한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적’형의 품사

‘적’형은 명사의 속성을 가지지만, 수식 구조에서는 다른 명사와 달리 홀로 피수식어의 위치 에울 수 없으므로 ‘적’형을 수식 의존성 명사라 한다.

### III. 접미사 ‘적’의 의미

파생어의 접사는 어근에 비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데, 접미사 ‘적’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접미사 ‘적’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논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a. 정도성: 김규철(1980: 88-90), 남기심·고영근(1987: 220-1)  
 b. 도식성: 김광해(1983)

- c. 속성화, 도식성: 김수호(1990: 13-19)
- d. 고유 의미가 없음 ·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거나 그 속성에 가까움: 김창섭(1984, 1996: 190)
- e. 어기의 성질 · 상태가 있음, X에 관한 것임: 조남호(1988: 54-5), 최형용(2000)

'적'의 의미는 크게 (19)와 같이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19d)와 (19e)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19a)의 '정도성'은 '적'형이 다른 명사와 달리 정도부사와 호응할 수 있는 독특한 통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매우 논리적인 사고'에서 '매우'가 명사 '논리적'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매우'가 수식하는 것이 '논리적'인지 아니면 '논리적인'을 수식하는지 명백하지 않다.<sup>14)</sup> (19b)의 '도식성'은 김광해(1983=1995: 71-77)에서 제시한 것으로, '적'이 어떤 명사 N<sub>1</sub>에 부착되어 새로운 명사를 만들면서 N<sub>1</sub>의 내포적 의미(intensional meaning)를 도식화(schematizing)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20) 그의 정치방식은 히틀러적이다.(김광해 1983 참조)

(20)의 '히틀러적'은 고유명사 '히틀러'가 지니고 있는 의미체계 중에서 가장 친근한 의미 하나가 '적'에 의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을 '도식성'이라 하였다. '적'의 도식적 의미 기능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김수호(1990: 17)도 이를 일부 수용하여 선행어근이 고유명사인 경우에만 '도식화'의 기능이 나타나고 그 외는 여러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속성화'라 하였다. 한편 김창섭(1984, 1996: 190)은 '적'의 어휘적 의미가 접미사 '-하-, -롭-, -스럽-, -답-'의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

14) 김용석(1986: 11-3)에서도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적'의 의미가 '정도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았다. 김용석(1986)은 '적'의 용법을 어휘형성 기능의 접사와 통사적 기능 어미로 구분한다. 그 기준은 'X적 NP'의 심층구조가 'NP가 X적이다'와 같이 문장을 형성하면 '적'은 어미가 되고 주술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접사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후행명사에 의해 '적'의 통사단위가 결정되는 모순을 안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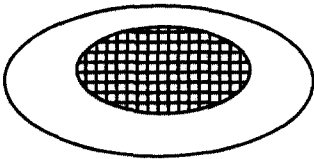
로 보았다. 즉 '-하-'의 '고유한 어휘적 의미가 없음', '-롭-'의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 '-스럽-'의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조남호(1988: 54-5)에서는 '-적'이 '어기의 성질·상태가 있음'과 'X에 관한 것임'의 의미를 각각 가지는 경우와 이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적, 감격적' 등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수적 우세'의 '수적'과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적'의 의미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는 '-적'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적'은 '근접성'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근접성이란 '-적'이 어기(base)의 속성을 포함하거나 근접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적'이 어기의 속성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기도 하지만 그 속성의 범위 근처에서 그 속성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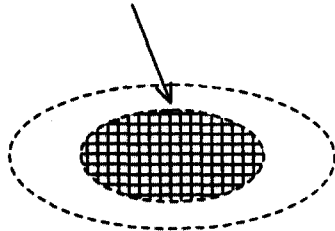
- (21) a. 그는 귀족이다.
- b. 품모가 귀족적이다.

'귀족'은 평민의 반대로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sup>15)</sup>으로 정의되지만, '귀족적'이라고 하였을 때는 지시하는 사람이 '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지 귀족이 가진 속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귀족의 개념범위에 근접한 것이다.

(22) a.



b.



15)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빗금친 부분이 귀족의 의미가 가진 범위라고 한다면 (22a)는 '귀족'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귀족적'은 '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귀족'의 의미를 향해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다. (22b)의 화살표는 '귀족'의 의미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귀족'의 의미를 충분히 함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그 개념의 의미영역이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빗금친 '귀족'의 의미뿐 아니라 귀족의 의미와 유사한 속성을 그 개체가 가지고 있어 귀족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범주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근접성의 의미를 가진 것이 '-적'의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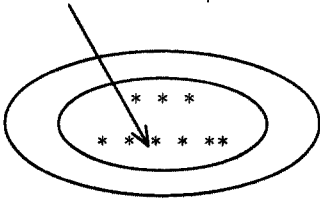
둘째, '-적'은 도식성의 의미를 가진다.<sup>16)</sup> '-적'의 도식성 의미는 '-적'의 어기로 고유명사가 올 경우에 뚜렷해진다. 도식화(schematizing)는 일반 언중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배적 속성(dominant attributive)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일반화된 고유명사가 사용되면 도식성의 의미가 추정되지만 고유명사가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이면 언중이 그 속성을 추정하기 어렵다.

- (23) a. 그는 모차르트(Mozart)적 기질이 보인다.
- b. 그는 피보나치(Fibonacci)적 인물이다.

(23a)의 '모차르트적 기질'은 언중들이 모차르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23a)와 같은 '모차르트적 기질'의 의미를 '음악 세계 내지 전공 분야에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23b)의 '피보나치적 인물'은 언중들이 피보나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23b)의 '피보나치적 인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보나치의 지배적 속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23b)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피보나치가 '피보나치의 수열(Fibonacci sequence)'의 개념을 만든 수학자라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도식화가 가능하다.

16) 김광해(1983), 김수호(1990) 참조.

(24)



어떤 명사를 A라고 한다면, A는  $\{a_1, a_2, a_3, a_4, \dots, a_{n-1}, a_n\}$ 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도식화란 A의 여러 속성 중에서 지배적 속성을 가진  $a_1$ 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명사가 (24)와 같이 여러 속성들(\*로 표시함)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는 그 명사의 의미는 모든 속성들을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개 한 속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사용되어진다. 이와 같이 도식성은 그 명사의 대표적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다. 도식성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24)의 그림을 사용한다면, 어떤 단어가 원이라면 그 단어는 여러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여러 속성 중 한 속성이 화살표를 받는 것은 그 속성이 도식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해석할 때는 그 어기의 대표적 속성이 도식화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 (25) 접미사 '-적'의 의미

접미사 '-적'은 크게 근접성과 도식성의 의미를 가진다. 근접성은 어떤 명사의 범위를 포함하거나 그 범위의 바깥에서 명사 범위를 향해 나아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도식성은 명사가 가진 여러 속성 중에서 지배적 속성을 가진 요소가 부각되는 것이다.

## IV. 마무리

지금까지 어기와 접미사 '-적'이 결합된 유형의 통사적 범주와 '-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형의 통사적 범주는 명사, 관형사, 부사, 서술명사,

어근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며 문장 구성의 필수 논항이 될 수 있으며 계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명사로 인정하였다. 비록 '-적'형이 선행 성분의 수식을 홀로 받을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은 관형명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적'형의 통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적'형과 관형명사를 수식 의존성 명사라 하였고, 의존명사는 피수식 의존성 명사라 하였다. 그리고 접미사 '-적'의 의미는 크게 근접성과 도식성을 가지는 데, 근접성은 어떤 명사의 범위를 포함하거나 그 범위의 바깥에서 명사 범위를 향해 나아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며, 도식성은 명사가 가진 여러 속성 중에서 지배적 속성을 가진 요소가 부각되는 것이라 하였다.

접미사 '-적'은 현대에도 여전히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접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지속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형식명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6:1, 고영근(1989) 재록, 63-111.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소령(2000), 국어 명사구의 관형명사 범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1983), 의미의 도식화와 접미사 '-적', 덕성어문학2,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1995) 재록, 60-82.
- 김광해(1995),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규철(1981), 단어형성 규칙의 정밀화, 언어 6-2.
- 김민수·양재연(1955), 대학국어, 영화출판사.
- 김선효(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호(1990), 한자어 접미사 '-적'연구,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 언어연구회, 5-28.
- 김영욱(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87-109.
- 김재운(1976), [N+적]류 명사에 대한 형태 통사론적 고찰, 논문집 12, 청주교육대, 155-172.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 21.
- 김창섭(1999), 단어와 구 형태통사론,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발표지.
- 노명희(2002), 어근류 한자어의 문법적 특성, 국어연구회 발표요지.
- 서재극(1970), 개화기 외래어와 신용어, 동서문화 4, 계명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 서정수(1995), 의존명사의 새로운 고찰, 태릉어문연구 5·6, 195-224.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민(1985), 파생어형성 의존형태소 '-적'의 시원, 우운 박병채박사 환력기념논총, 고려대, 285-301.
- 신서인(2000), 현대국어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62.
- 언어문학연구소(1961), 조선어문법1, 학우서방.
-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문법, 평양:삼도.
- 유순희(1999), 한국어의 '-的'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병모(1995), 의존명사의 형태론적 연구, 학문사.
- 이상혁(1991), '-적' 파생어의 형태통사론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웅(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35-58.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475-83.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155-165.
- 이주행(1985),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중대논문집* 29, 471-96.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 임홍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임홍빈(1999) 재록.
- 임홍빈(1999), *국어문법의 심층2*, 태학사.
- 정희정(2000),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00), '-적' 파생어의 의미와 '-적'의 생산성, *형태론2-2*, 215-38.
- 허철구(1997), 국어의 합성동사 형성과 어기 분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재성(1974), Etude sur le Suffix -적(的) in Coréen Contemporain, *Revue de Corée*, 6-1.
- 홍재성(2000),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2000년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2001a),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2001년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홍재성(2001b), *한국어의 명사 I*, *새국어생활* 11-3, 129-44.
- 홍재성(2001c), *한국어의 명사 II*, *새국어생활* 11-4, 119-32.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 Gleason, H.A.(1963), *Linguistics and English Gramma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Hockett, C.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